

# 신재생에너지 배당금 효과...신안군 귀촌 문의 쇄도

### 청정 섬·갯벌 '공해 없는 건강한 지역 1순위' 전국서 관심 매년 3000억 배당...기후위기 대응·대체 먹거리 확보 가속

1004섬 신안군에 전국에서 귀촌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각종 재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청정 지역인 신안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도심지역은 이산화탄소 방출원으로, 이를 흡수할 산림지역, 갯벌, 목초지, 농경지 등이 없고 정월화사업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도시민들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짜증나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까지 쌓이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청정지역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4개 섬과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양질의 갯벌을 지녔고, 산림과 농경지가 풍부해 귀촌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여기에 1도 1섬 사계절 꽃피는 세계 최대의 섬 국가정원 사업도 완료단계에 가까워지면서 '공해 없는 건강한 지역 1순위'로 불리며 각광을 받고 있다.

신안군은 토양 오염의 주범인 농자재 비닐멀칭(덮기)도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멀칭을

사용하게 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신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공해 없이 오염되지 않은 해풍을 맞고 자라 안전 먹거리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군은 또 귀촌인을 대상으로 희망자에게는 어선 임대 사업과 개체군, 농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 의지만 있으면 귀촌해 고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배당금 이익공유제에 따라 제공되는 매년 3000억원 이상의 배당금도 귀촌 희망자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서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기는 세계 각종 기구와 소통을 이어가면서 미래 먹거리와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박우량 신안군수의 공이 컸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박 군수는 최근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 때 초청을 받아 슬로시티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신안군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켰다. 또 지난달 6일에는 UNWTO 해리왕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이 신안을 방문해 '신안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와 '국제미식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심을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수익금을 주민들에 돌려주는 '햇빛언금'을 활용해 만 18세 미만에게 연 40만원의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햇빛아동수당 첫 지급 기념 행사. <신안군 제공>

보였다. 신안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면서 미래 먹거리도 찾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사명감이 귀촌 희망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신안 귀촌을 확정한 김영권(66·성남시)씨는 "퍼플섬 등 신안이 사계절 꽃피는 섬, 세계 최대의 섬

국가정원사업, 등을 보았을 때 신안은 공해 없는 건강의 섬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신안군이 지방소멸위기가 두 번째로 높다는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도 군민이 푹푹 뽕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창의적인 사고로 가능하게 했던

저력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중립과 함께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명감과 개척정신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군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완도 북고리, 일·휴가 즐기는 '워케이션' 어촌체험 마을 선정

### 해수부·한국어촌어항공단

### 12월까지 각종 체험 프로그램

완도 노화읍 북고리가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됐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다. 사무실이 아닌 휴가지에서도 여가를 즐기며 업무를 하는 형태를 뜻하며 일의 능률과 삶의 활력을 누릴 수 있어 새로운 근로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공모를 통해 어촌체험 휴양마을 10개소를 올해의 워케이션 대상지로 선정했다.

노화읍 북고리는 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운영 중으로 바다를 보며 휴양을 할 수 있고, 전북 주산지답게 전복을 직접 따보고 현장에서 시식하는 체험 더 즐길 수 있다.

노화도에서 보길대교를 지나면 운전도 유적지와 친환경 해변에만 부여하는 국제 인증인 블루플래그를 획득한 보길대교 해수욕장, 전망대 등 깨끗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접할 수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워케이션 마을로 지정된 노화읍 북고리에서 관광객들이 전복 잡기 체험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영진 교육과 마을별 기반 시설 조성을 마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어촌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바다 여행 누리집과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업·기관의 부담금은 근로자 1인당 6만~19만 원 내외다.

3박4일의 공유 오피스 사용, 숙박, 조식, 어촌 체험(1회), 여행자 보험 등의 비용은 공단에서 지원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워케이션 마을 지정을 계기로 우리 군 환경에 맞는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촌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경기장·교통 사전점검 목포시 육상·테니스 등 7개 종목 프레대회

### 10월까지 6개 종목 진행

목포시가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 규모 프레(pre)대회 지원에 나선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체육회가 양대 체전의 성공을 위해 시범(경기)운영이 필요한 종목 중 7개 종목을 선정해 전국 규모 프레대회를 추진한다.

전국 규모 프레대회는 전국 시·도 선수단이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다. 이번 프레대회 대상 종목은 육상, 볼링, 테니스, 승마 등 총 7종목이다.

정식 대회에 앞서 경기 운영 등 실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프레대회는 지난달 '2023 전국하계장애인 유도선수권대회'를 개최했고, 이후 10월 말까지 6개 종목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레대회 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

44회 전국시·도대학 육상대회(19-21일) ▲제42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 볼링대회(25일-9월10일) ▲제77회 전국추계대학테니스연맹전 제35회 대한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대회(25-31일) ▲제72회 대한수영연맹회장배 전국수영대회(9월9-14일) ▲LIG 2023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9월8-10일) ▲제9회 전남도 영산강배 전국장애인승마대회(10월28-29일)다.

목포시(장애인)체육회는 양대 체전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종목단체와 함께 전국 규모 프레대회 개최를 통해 경기장 시설 사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프레대회를 통해 종목별 대회 운영과 철저한 시설 점검 등을 실시, 보완점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경기 진행, 교통, 숙박 등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진도군 "주민세 이달까지 납부하세요"

### 고지서 1만4700여 건 발송

진도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에 제때 세금을 내달라고 안내했다.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액 8000만원 이상 사업자가 해당한다.

개인이 낼 주민세는 1만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연면적 330㎡ 초과 때 250원)으로 구성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진도군은 이달 초 해당 사업자에게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 총 1만4700여 건, 3억원 상당이다.

진도군은 업소분의 신고 납부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주민세 납부 기간을 홍보·안내하고 있다.

납부서를 잃어버리거나 받지 못했다면 진도군 세무회계과(061-540-3311)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여겠다"며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목포시 LPG 화물차 10대 구매 지원

### 대당 100만원...11월까지 신청

목포시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10대를 대상으로 신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신차 구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바로 마감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 1t 화물차를 새차를 살 때 신청하면 된다. 총 지원 대수는 10대

이고, 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LPG차 전환지원신청과 화물차신차구입 지원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목포시 기후환경과(061-270-86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신안 섬 축제, 조달청 나라장터서 만나요

### 맨드라미 축제부터 여행상품 판매 지역 관광지 방문 50%까지 할인

신안의 대표 섬 축제 가운데 하나인 '맨드라미 축제'를 오는 9월부터 조달청 공식 온라인몰인 나라장터에서 판매한다.

맨드라미 축제는 오는 10월5일 병풍도에서 열리는 대표 꽃 축제이다.

신안군과 광주지방조달청은 지난 4월 지역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축제 상품의 나라장터 입점을 추진했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공공기관이 구매자인 공공기관 물자 구매 시스템이다. 학생 등 단체 여행객이 이 축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안군은 앞으로 맨드라미 축제 외에도 퍼플섬 라벤더 축제, 수선화 축제, 수국 축제, 톨립 축제, 겨울꽃 축제 등 모든 꽃 축제 여행상품을 온라인 판매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초 열리는 '신안 병풍도 맨드라미 축제'가 오는 9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판매된다. 지난해 축제 모습. <신안군 제공>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단체 관광 상품과 차별화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전담 배치하고, 현지 길잡이가 모든 일정을 동행해 여행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 연계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10~50%까지 이용료에 대한 할인을 적용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에서는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꽃 축제가 열린다"며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여행상품을 판매해 섬 여행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영암군 '왕인박사 학생백일장' 작품 모집

영암군이 '제20회 왕인박사 학생백일장' 작품을 모집한다.

영암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백일장 응모 주제는 '왕인박사의 발자취'다.

글짓기 만화 영상 3개 분야에 시 수필 사행시 웹

툰 UCC 비로그 단스영상 7개 형식의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사행시의 운은 '왕/인/박/사'이다. 시·수필·사행시는 A4 용지 3매 내외이다.

웹툰은 7컷, UCC·비로그·단스영상은 20초~1분 분량의 원본이어야 한다.

작품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영암군 창의문화사업소에서 이메일(qkfhalex117@korea.kr) 또는 우편으로 받는다. 군은 3개 응모 분야별로 초·중·고등으로 나눠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수상자 25명을 선발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의 역사와 아이들의 꿈과 끼, 열정이 잘 버무려진 작품들이 출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현 기자 jbh@